

# 이정후, MLB 밀워키전서 적시 3루타

5경기 만에 장타·시즌 두 번째 3루타

타율 0.329...샌프란시스코 5-2 승리

미국 메이저리그(MLB)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썬을 박는 3루타를 폭발해 팀 승리를 견인했다.

이정후 22일(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파크에서 벌어진 2025 MLB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경기에서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전날 LA 에인절스전에서 5타수 무안타로 침묵해 연속 경기 안타 행진이 '5'에서 멈췄던 이정후는 이날 시즌 두 번째 3루타를 때려냈다. 5경기 만에 나온 장타다.

다만 시즌 타율은 0.333에서 0.329로 떨어졌다.

1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첫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는 오른손 선발 투수 켄 프리스터의 슬라이더에 방망이를 댔으나, 2루수 땅볼로 물러났다.

3회말 1사에서는 프리스터의 바깥쪽 심커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며 3루수 땅볼에 그쳤고, 5회말 1사 1루에서는 바뀐 투수 닉 피어스를 상대로 2루수 방면 땅볼에 머물렀다.

이정후는 주자 윌리 아다메스가 2루에서 아웃된 사이 1루에서 살았지만, 후속 타자 맷 채프먼이 2루수 땅볼로 아웃돼 진루에 실패했다.

잠잠하던 이정후는 네 번째 타석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21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경기 7회말 1타점 3루타를 치고 있다.

팀이 4-2로 앞선 7회말 2사 1루에서 이정후는 왼손 구원 투수 재러드 케인의 심커를 받아쳐 우중간을 가르는 1타점 3루타를 터뜨렸다.

그러나 채프먼이 중견수 뜬공을

쳐 그대로 이닝이 종료됐다.

이정후의 썬이 타점에 힘입어 샌프란시스코(15승 8패)는 5-2 승리를 거뒀다.

/뉴시스



제64회 전남체육대회 여수시 종합 2위...사격 김해운 MVP

18일~21일 장성군 일원에서 열린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서 여수시 선수단이 종합점수 4만 점을 돌파하며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사격 부문에서는 여수여고 김해운이 공기소총 60발 전탄 10점(총 600점)이라는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개인전·단체전 1위, 대회 MVP를 수상했다.

/여수시체육회 제공

## ‘KIA 희소식’ 김도영 복귀 임박

오늘 2군 경기 출전...이르면 25일 복귀 가능



KIA 김도영이 왼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덕아웃으로 돌아오고 있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에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2024시즌 최우수선수(MVP) 김도영의 복귀가 임박했다.

KIA는 “김도영이 21일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며 정상 훈련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도영은 지난달 22일 NC 다이노스와의 정규시즌 개막전에서 3회 안타를 친 후 왼쪽 허벅지에 통증을 호소했다.

정밀검사에서 헬스트링 손상 진단을 받았다. 재활에 전념한 김도영은 상태가 호전되면서 지난 3일부터 기술 훈련에 들어갔다.

정상 훈련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하면서 김도영의 복귀도 가시화됐다. 김도영은 22일 기술 훈련을 한 뒤 23일 합평구장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퓨처스(2군)리그 경기에 출전한다.

24일 라이브 배팅을 소화한 후 1군 승격을 기다린다. 이르면 25일에도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통합 우승을 이룬 KIA는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지만, 김도영을 비롯해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11승 12패, 승률 0.478로 6위에 머물러 있다.

## 순천, 전남체육대회 ‘2년 연속 종합 우승’

23개 종목 376명 참가...전 종목 골고루 상위권



순천시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장성군 일원에서 개최된 ‘제6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전날 22개 시군 7,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전남체전에 순천시는 23개 전 종목, 376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그동안 갖고있던 실력과 기량을 펼쳐며 종합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순천시는 2024년 종합우승을 차지한 이래 2년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종목별로는 배구, 소프트테니스, 축구, 족구에서 1위를, 탁구, 골프, 궁도, 농구, 바둑, 복싱에서 2위를,

유도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종목에서도 골고루 상위권을 기록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땀과 열정으로 준비해 온 선수들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진 것 같다. 최선을 다해 준 선수단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이상대 순천시체육회장은 “선수단의 노력이 2년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결실을 맺어 기쁘고 자랑스롭다”며 “전남 제1의 도시답게 순천의 품격을 보여준 선수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체육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순천=조순의 기자

## 양궁 남수현, 2025 국제대회 출전 확정

하계유니버시아드·아시아선수권대회 출전



순천시청 양궁팀의 남수현 선수가 2025년 국가대표 최종 평가전을 통과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됐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열린 2025년 국가대표 1, 2차 평가전 결과, 남수현 선수는 리커브 여자부 국가대표 8명에 포함되어 오는 7월부터 열리는 국제대회에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서 주최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로 오는 7월 독일에서 개최되며, 아시아선수권대

회는 아시아양궁연맹(WAA)이 주최하는 국제대회로 11월 방글라데시에서 열리게 된다.

남수현 선수는 2024년 파리올림픽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한 올림픽 2관왕으로, 순천성남초, 순천풍덕중, 순천여고를 졸업, 2024년 순천시청에 입단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남수현 선수의 꾸준한 훈련과 지도자의 훌륭한 가르침으로 2년 연속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출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출전하는 대회에서 순천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제64회 2025. 4. 18.(금)~4. 21.(월)

#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3회 2025. 4. 30.(수)~5. 2.(금)

#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엘로우시티스타디움 외 종목별 경기장**

- 주최** 전라남도체육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 주관**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제33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추진위원회
- 후원** 전라남도 / 전라남도교육청 / 장성군